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 율법, 믿음, 기도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

1. 만일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빠뜨리면 율법은 진노 영원한 죽음 무서운 심판 선고. 이 재앙 피하고 우리 더 나은 상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 자비를 완전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믿음 본질은 무엇? 사도신경은 믿음 내용으로 공교회 합의한 것.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2

2. 먼저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참 믿음 아님.

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진실되게 인정하는 가운데 그를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옳다고 믿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희망과 신뢰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두는 일.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선의를 조금도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격려를 얻게 되는 것.

우리 모든 필요를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확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심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그를 통해 죄 용서, 성화 얻게 되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기 위해 구원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4

3.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 지탱 해야 할 목적과 과녁.

말씀은 믿음의 기초로 이것 없이는 믿음 설 수 없다.

참 믿음, 그리스도인 믿음은 마음 확신인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진리가 너무 확실하여, 그 분 말씀으로 서약한 것 이루지 않을 수 없음 인정하게 됨 (롬 10:11).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 11:1)라 부른다. “실상”이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기초를 의미.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5

믿음 그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의 확실하고 분명한 소유. 그러므로 바울은 희망 속에 놓여진 일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확보하는 것을 믿음이라 부름 (참조. 롬 8:24).

증거, 헬라어로 엘렝쿠스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의 증거를 뜻하는데,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봄이요, 애매한 것들을 지각함이며, 없는 것들의 현존이며, 감추인 것들의 증거임.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는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6

4.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인정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 11:6).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신앙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정리:

첫 세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7

5. 아래 나오는 삼위일체 강해를 통해 칼빈은 궤변가와 논쟁하려 함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있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며,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지적하여, 들을 준비가 된 열려진 자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함.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침.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 6:4)라고 천명. 성경이 성부를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이라 말할 때, 결코 모호하게 말함이 아님.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8

6.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칼빈의 증거: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는 하나라고 보여줌.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라 증명할 수 있고,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임 증거.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과 연합하고자 하는 세례를 한 믿음으로 받음이 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함은 (마태 28:1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전제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되심을 증거.

그분들이 한 믿음으로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한 하나님이심을 증거.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9

7. 로마서 8:9-11은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구별하지 않고 언급.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이라는 뜻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수밖에 없음 증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 반면, 세 이름이 나오고, 셋이 묘사되고, 셋이 구별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와 셋이다. 한 하나님 한 본질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0

왜 셋인가?

고대 정통 교부들은 이것을 한 본질(ousia)과 세 위격 (hypostasis), 곧 한 본성 (substance) 속에 세 요소 (subsistence)가 있다고 표현했다. 라틴 교부들이 표현하고자 함은 한 본질 (one essence)이 존재하시며, 세 위격 (three persons, 이 말로 어떤 종류의 관계를 지적하고자 함)이 있다는 내용.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1

8. 이단자들은 우시아, 휘포스타시스, 즉, 본질, 위격이란 말이 성경에 원래 나오지 않는 인간의 지어낸 말이라고 공격 (현대 신약학자들도 동일하게 떠듬).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 의해 인정되고 인친 바 된 내용을 설명하는 말임을 천명.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의”란 말을 사람들은 이해 못함으로 설명해야 한다. 곧,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2

여기 우리가 첨가 시켜 가르쳐야 함은 “의”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의이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전가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가되어 의롭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기만 하면 전가에 의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간단하고 복잡스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3

9.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나, 그리스도가 창조되었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시작을 가진다고 주장함. 이에 반하여, 정통교부들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요, 아버지와 동일본질 (**homoousios**)라고 선포.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교부들의 주장을 치열하게 공격하고 반대함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냄.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4

한편, 시벨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어떤 차이도 없는 다양한 속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이해. 시벨리우스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아들을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나,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아들, 성령은 아버지로 계급도, 구별도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정통교부들은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자질이 진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크게 반박. 단순한 진리를 왜곡하는 시벨리우스파들 앞에서, 교부들은 한 하나님 안에는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존재한다고 논거.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5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요, 성령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특별한 자질에 의해 구별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한편에서 아리안주의자들을, 다른 한편에서 시벨리안주의자들을 대항하는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6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창조되었고 시작을 가진다고 덧붙이기 때문이다. 그 추종자들에게, 당신은 “동일본질 (homoousios)”라고 말해 주라. 그러면 변절자의 가면을 찢어 밝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벨리우스가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떤 구별도 인정치 않는다. 이들에게 당신은 셋이라고 말해 주라. 그들은 당신이 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고 고함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한 본질 속에서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해주라. 그러므로 당신은 말 많은 빈 깡통을 요절내게 될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A. 믿음과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7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용인하게 만들어라.

이는 우리가 “하나”라고 할 때, 본질의 합일을 말하며, “셋”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의 본질 속에 있는 세 자질과 서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실제 이 셋을 구별하는데, 아버지에게는 활동의 시작 및 만물의 기초와 원천을, 아들에게는 활동의 지혜와 계획을, 성령께서는 활동의 능력과 효율적 사역을 돌리고 있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

첫째 부분.

전능하시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0. 성부하나님께 우리 모든 신뢰를 두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신들과 무릇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모두가 그 분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분의 보호로 우리가 안전하고, 방어 받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적대적 세력으로부터도 보존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감사하는 경건과 타오르는 사랑으로 존경하여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매사에 그를 높여야 하겠다. 모든 역경까지도 조용, 화평한 마음으로 받아, 그의 섭리가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야 겠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

둘째 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지옥에 내려 가셨다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

11.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바 우리가 그 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는 아들이시되, 신자들처럼 입양을 통해 은혜로 된 아들이 아니라 본성으로 그러하시며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셨다. 그를 “외”아들이라 부름은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구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한,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신다. 위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아버지로부터 구별되는 그 자신 고유한 것을 가지심 때문이다. 이 신비는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5

성자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 천지 창조자이시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6

12.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분이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친절과 자비로 인하여 보내지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얽매어 있었던 마귀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 주시려 내려 오셨다는 것, 우리가 빠져 있던 육신과 영혼의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 주려 오셨다는 것, 우리가 떠넘겨져 있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려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친절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입기 위하여 내려 오셨고, 이를 그의 신성에 합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7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참 신이요, 인간이란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으로 가려 만사가 다 흩어져 버렸을 때, 누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사 7:14).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8

이 중보자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곧 사람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또한 본성으로 그의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 되게 하지 않고서는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적 아들이 우리의 몸으로 그의 몸을 삼으시고, 우리의 살로 그의 살을, 우리의 뼈로 그의 뼈를 삼으사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 있는 것이다 (창 2:23-24, 엡 5:29-31). 우리의 것인 것을 그 자신에 속하도록 뜻하심으로써 그의 것인 것을 우리에게 속하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둘이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천국의 기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의 완전한 기업이었던 것을 그의 형제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로마서 8:17)**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0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란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그 분의 임무는 죽음을 삼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생명 자체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의 자체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니고는 누가 생명이요, 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야겠다고 뜻하셨을 때, 그 분 자신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이다 (비교. 롬 5:8).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1

우리 구속에 대한 또 다른 항목은 이것이다. 즉 사람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진 바 되었는데, 이제 순종을 통해 그의 혼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케 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는 아담의 인격을 취하시고, 이제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우리 몸을 입어 아버지의 정의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2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신성이든지, 그의 인성이든지 어느 하나라도 빼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욕하는 것이거나 그의 선하심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어 동일한 한 분이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는 본질의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의 합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3

14.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위에 머무시고, 그의 충만함 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그의 위에 다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는 것은, 이 기름부음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4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아버지의 노를 풀고, 우리를 그와 화목케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대도자요, 중보자인 그와 함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가 아버지에 의해 우리 위에 계시도록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분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5

우리는 그가 성처녀의 태 속에서, 성령의 놀랍고도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을 믿는다.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죽을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죽음에 그의 몸을 넘겨 주시고, 그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흘리셨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6

더욱더,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수요, 행악자처럼 심판관의 인도를 받아 정죄 되었는데, 이는 그가 정죄 받으므로 우리가 가장 높으신 심판자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저주 받을 일로 나타나는 바, 그는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 (신 21:22-23; 갈 3:13). 그는 죽으셨다. 이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삼키도록 된 그 죽음을 삼키기 위함이다 (호 13:14; 고전 15:54). 그는 묻히셨는데, 이는 그의 은혜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묻히고, 마귀와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히 2:14-15; 롬 6:4).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7

15. 그가 지옥에 내려 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사 53:4, 11), 그리하여 우리의 빛을 지불하고, 형벌을 제거하시되, 그 자신의 죄 (결코 있을 수도 없는) 때문인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같이 하시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으며” (사 53:5), 또한 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시들을 다 경험하셔서, 깊은 고뇌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 마 27:46)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까지 되셨다.

베드로전서와 같이 여기서 지옥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8

16. “제 삼일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참 인간이 되시어 이제는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며, 몸과 영을 받되 부패되지 않고 영화된 상태임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 능력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일으켜 의롭게 된 상태에서 생명과 의의 새로움을 얻게 한다고 믿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죽음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으킴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19

17. 우리는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 이 승천으로써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닫혀져 있었던 천국에의 입구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이다 (요 14:1-3). 진정, 그는 우리의 육신으로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이는 천국을 그 분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후에는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 우리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히 2:10, 13).
- 우리는 또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다. 그가 이제 왕과 심판자와 만유의 주로 임명받고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0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성화 시키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로 나아갈 때까지 하실 것인데, 이 죽음은 우리 불완전의 종점이 될 것이며, 우리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인 바, 우리가 이 축복을 그 안에서 받아 그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지주요, 능력이요, 지옥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다. 이제 그가 아버지 앞에 계신 것이 우리를 위해 큰 이익이다. 이는 그가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며,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 중보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롬 8:26-27). 이것을 또한 그는 약속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 28:20).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1

18.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내려 오실 것”을 믿는다. 그가 올라가실 때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2

19.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전체와 또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고로, 우리가 우리 구원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치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만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에게만 모든 기대를 거는 자들이 무슨 선한 일이든지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바랄 수 있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3

성령을 믿사오며

20.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 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본질이며, 함께 영원하며,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사실은 아버지께 이르는 그리스도 외의 다른 길이 없듯이 성령 외에 다른 지도자나 인도자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4

은혜는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요 활동이다. 은혜를 통해 성부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신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우리의 어떤 의무나 공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써 자유롭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 그의 사역은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아무 것도 우리의 공적에 돌릴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꼭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를 위한 믿음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5

넷째부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1.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선택 받은 자는 어느 땅, 어느 민족 사이에 있든지, 한 교회요,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믿는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 모두의 지도자, 통치자, 한 몸의 머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기초가 있기 전 선택함을 입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모이게 하셨다. 이 사회는 보편적, 우주적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6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연합 (엡 1:22-23), 한 머리에 붙어 한 몸으로 함께 자라며, 함께 결합하여, 짜여져 가는 한 몸의 지체와 같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부르심을 받아 진정 하나가 되어진 것이다.

교회를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선택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어,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을 뜻한다 (요 17:17).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7

22.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순서를 이렇게 묘사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30). 먼저 부르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신 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의롭다 하심으로 그들의 불완전을 덮으시고, 그 후 그들의 육체의 부패를 매일 씻는 자들을 성령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하사, 왕국의 위엄이 나타날 때, 거룩하고 흠없게 나타나도록 영화롭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던 그의 영원한 선택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8

23.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요 10:28)임으로 결코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견고한 터전 위에 자리잡고 있어, 이 세상 모든 구조가 다 허물어져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선택과 더불어, 그 영원한 지혜와 함께 변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울 말처럼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9).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키심에 넘겨진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요 6:39).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29

우리가 교회를 믿되, 하나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믿는다면, 우리는 택하신 자의 한 부분으로 그들과 함께 부르심 받고 부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성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키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풍성하고 견고해진다 (요 1:12).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0

24.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대한 성부 하나님의 선의와 생명과 구원, 간단히 말해 하늘 나라 그 자체를 찾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구원과 선 위해 아무 것도 달리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 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곧 그 안에 우리 구원과 생명 모두를 두기만 하면, 그 분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받기만 하면, 그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1

우리 주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의 것으로 삼아 그의 교회의 양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기로 뜻하셨던 자들을 선택 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와 교회 속한 자가 된다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된다.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의 지속적, 불변적 진리임으로, 그 말씀 선포하는 바 대로, 처음부터 그랬고, 영원히 그러할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의심치 않게 된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2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천국 상속자인 것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친구로, 그가 받을 기쁨 함께 나눌 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결코 멸하지 않으실 자들 속에 속하였음을 확신하게 된다 (롬 8:31-39).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3

25. 그러나 선택된 자를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내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아님. 하나님만 자기 백성 아신다 (딤후 2:19). 인간 눈에 버린 희망없던 자가 하나님 선하심 의해 생명길 가고, 남들 앞서 나가던 것으로 보이던 자가 넘어지는 경우 본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보전될 자인지 보실 수 있다 (마 24:13). 이는 그 분만 구원의 머리이시기 때문. 말씀 사역자들이 땅에서 풀고 맨 것이 하늘에서 풀고 맨 것이 되리라는 말씀 (마 16:19)은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아버지 존전에서 심판에 풀리고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씀. 이 약속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존전에서 결박되고 정죄됨.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4

26. 택한 자들, 확실히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표시 일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 소외된 자들인지 구별가능. **하나님과 그리스도 고백과 생활 규범 통해서 성례 참여 하는 자들은 선택 받은 교회 회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입술로 고백 하더라도 행동으로 버린 자들, 죄와 탐욕에 취해 있는 자들, 자기들 악함을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 이런 유의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일원 아님을 나타냄.**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5

출교가 제정됨은 이런 경우 사용 위해서 이다. 교회 거침돌만 될 뿐,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치 못한 자들이 회중에서 끊쳐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전 5:1-15). 그런 자들 용납하면, 교회가 마치 행악자들, 악한들 모의회 될까봐. 그런 자들과 빈번한 접촉으로 타락한 삶이 다른 사람 부패 시키는 것 막기 위해.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6

27. 징계할 사람들, 당분간 교회로부터 고립시키되, 분별하도록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할 것. 마치 하나님 손에서 버려진 자처럼 다루어 절망케 해서 안됨.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정죄된 것이 매우 확실하지 않는 한 포기해 버림은 전적 잘못.

이미 정죄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자들은 확고한 목적과 굳은 악의를 품고 진리를 공격하거나 복음을 압박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경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하는 자들. 하나님 입이 이런 자들 이미 정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이 세대, 오는 세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심 (마 12:32).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7

사람 자체를 죽음에 이르도록 언도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의 손과 심판 안에 있다), 다만 각 사람 행사를 하나님 법에 따라 선악의 규칙대로 재기만 하자.

28. 출교는 이전 생활 더러움 떠나 올바른 길로 되돌아 올 때까지 벌받고 있는 것. 바울 기록같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그 영혼이 주님 날 안전하게 하기 위함 (고전 5:5). 순간적 정죄로 영원히 안전케.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8

29.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순전히 전파되고 경청되는 곳,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대로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하나님 교회가 존재한다고 의심치 않고 말할 수 있다 (엡 2:20). -- 교회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칼빈의 지표로 종교개혁 이후 모든 교회에 통용.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39

30.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함은 공교회 안에서 모든 택한 자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자들)이 상호교제를 가지며 또 모든 좋은 것에 동참함을 의미.

성도의 공동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공평과 필요에 따라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것을 목적한다.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나누는 자들이 된다 (롬 12:4-8). 한 몸의 지체가 일종 공동체로 서로 나누며, 각자 특별한 은사와 독립된 사역을 수행하듯, 성도들은 서로 모여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공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 (엡 1:22-23).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0

31. “우리는 죄 용서를 믿는다” 이는 하나님 자유대로 그리스도의 공로 통해 죄 용서와 은혜가 우리들 곧 교회 몸체에 입양되고 접붙여진 자들에게 왔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자체는 죄의 용서로 구성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교회 지탱 (호 2:18-23).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그 분이 우리와 화해하게 되는 수단, 죄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교회로 들어가는 문 열어 주며 교회는 하나님 도성, 지존자가 그의 거하시는 처소로 거룩하게 한 장막이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1

신자들이 죄용서 받는 데는 그들이 자기 죄 자각으로 억압되고, 고통받고 혼동되어 있는 중, 하나님 심판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스스로 혐오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탄식하고 허덕일 그 때, 이 죄에 대한 혐오, 스스로 혼란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 육체와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회개를 몸의 감옥 속에 거하는 한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사이, 그들은 거듭, 지속적으로 그런 회개 얻게 됨.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2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들 궁핍 자각함으로 모든 교만 꺾고, 자신들 온전히 내던져, 그 무가치함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때 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내미시는 자비와 달콤함 맛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심. 이를 맛볼 때 그들은 편히 숨쉬고 위로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와 또 복된 구원이 자기들 위함 인줄 확신 하게 됨.

반면 이런 과정 통해 하나님께 가지 않는 자들은 구원 연결 고리인 죄용서 결코 얻지 못함 (눅 16:15).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3

32. “우리는 몸의 부활 믿는다.”

모든 인간 육체가 일시에 한꺼번에 썩음에서 썩지 않음으로, 죽을 몸에서 불멸로 일으켜 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전 15:20-56). 이미 죽은 자들과 그들이 흙으로 변했든, 재가 되었든 그들의 몸을 다시 받을 것이다 (요 5:28-32). 그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자들은 자기 육체 부패성을 벗어 버리게 될 것. 모든 자들 갑작스런 변화 통해 불멸의 본질로 건너가게 되고 경건한 자들 생명 영광으로, 유기된 자들은 죽음의 정죄로 이르게 됨 (마 25:31-6).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4

33.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이는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 곧 몸과 영이 영화롭게 된 자들을 복락가운데 변화와 부패가 미치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될 그 복락가운데로 받아들이실 그 때 일어날 일.

마르지 않는 샘같이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속에 충만히 가지신 주님께 우리가 굳게 붙어 있을 때 생명과 빛과 의를 참되고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일 (고전 15:28-53). 그 복락은 기쁨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이들은 지금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부터 너무 멀리 옮겨져 있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추측하지 못한다 (고전 2:9).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5

반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나라 한 부분도 얻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가운데 쫓겨 갈 것. 거기 영원한 흑암과 영원한 형벌의 정죄 받아 죽지 않는 벌레에게 먹히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태워질 것 (마 3:12 par)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B. 사도신경 - 46

34. 우리가 진정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믿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중,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표시하기 위해, 신자들마다 주님께서 자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자기 구주인줄 믿으며 그 몸의 부활과 영생 기다리는 가운데 그 자신들이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고백의 마지막을 증명된 확실성의 부호인 “아멘”으로 끝맺고 있다.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C. 믿음, 소망, 사랑 - 1

35. 이제 이 산 믿음, 한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마다 이 믿음과 함께 소망과 사랑이 동반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 (고전 13:13).

소망이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으로 믿게 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기대.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요, 소망이란 그가 적합한 시기에 그의 진실을 보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C. 믿음, 소망, 사랑 - 2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 소망은 언제가 그것이 실현되기 기다리는 것. 믿음은 이렇게 소망의 기초가 된다. 소망은 믿음을 키우고 유지시킴.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것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약하여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꾸준히 소망하고 기다리어야 함.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C. 믿음, 소망, 사랑 - 3

제일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한다. 은사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들이 사랑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들 주어진 목적은 교회 세우기 위함. 이 목적 이바지 못하면, 은혜 잃고 만다.

사랑은 소망과 믿음보다 더 큰 것,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라기 보다 사랑, 곧 능력, 더 큰 능력에 의한 것으로, 바울이 주장.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더 멀리 영향, 더 많이 봉사, 영원히 번창하기 때문.

II. 믿음 (113-153) 사도신경 해설 포함

C. 믿음, 소망, 사랑 - 4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로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고 굳게 설 수 없다 (고전 4:7). 이 모두를 하나님께 구하되 자신들 안에서 찾아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에 속한 것, 사랑에 속한 것, 혹은 믿음에 속한 그 어떤 것 발견하게 되면, 그 전체를 하나님께로서 받은 줄 확신하고 감사, 마음과 입술로 구하되, 특히 마음으로 구하며 또 절제하여, 그 분이 우리 안에 그것들을 간직케 하고 또 매일 더 낫게 하시도록 해야겠다.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갈 동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우리 완전의 전부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히 도착하도록까지 걸어가야 할 도상에서의 전진 과정에 속하는 것.